

경남관광박람회 '꽃피는 남해 관광 홍보관' 운영

기사입력 2023-03-24 09:12:19

남해관광문화재단, 유채꽃 포토존 조성해 봄나들이 관광객 유치 집중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남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사진:남해군 제공

[대한경제=김영대 기자] "유채꽃과 벚꽃이 흐드러진 꽃섬 남해로 봄나들이 오세요~"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남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 지자체 등 100개 기관, 350여 부스가 참가한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꽃피는 남해, 봄나들이는 남해로!' 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꾸몄으며, 다랭이마을·두모마을·왕지 벚꽃길 등 남해 꽃 명소를 홍보하여 상춘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남해군 노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문화이벤트 '꽃피는 남해'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 봄을 맞이하여 상춘객을 남해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다랭이마을, 두모마을, 왕지벚꽃 등 봄꽃 명소와 함께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꽃피는 남해 문화이벤트도 준비된 만큼 남해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남해의 멋과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대기자 kochan2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사회부

김영대 기자

kochan20@hanmail.ne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